

아모텍, 2003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선정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 49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중 전기부문에는 (주)아모텍의 “칩 바리스터”(세계 3위 시장점유)가 선정되며, 지난 3월 선정된 45개품목 생산업체 46개와 既 선정 세계일류상품의 생산업체 3개로 지금까지 산자부에 의해 선정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은 총 325개 기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2003.5.23(금) 11:30 한국산업기술센터(21층)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및 수출촉진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정된 업체에는 국, 영문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도 발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www.mocie.go.kr -보도자료(NO 5241) 참조)

LG전선, 345kV급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일체형 접속재 개발에 착수

LG전선(대표 한동규)이 세계 두 번째로 345kV급 초고압 전력케이블용 일체형 접속재 개발에 착수한다.

LG전선은 산업자원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이번 개발을 국책과제로 단독으로 추진하게 된다 고 지난20일 밝혔다. 제품의 개발기간은 2년으로 계획돼 있으나 220kV급에 대해서는 관련 설계·컴퓨터보조기술(CAE)·제조기술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기간 단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압 접속재는 케이블과 케이블을 연결하는 제품으로 접속부분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만큼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초고압 케이블이 OF에서 초고압가교전선(XLP)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어 향후 일체형 접속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일체형 접속재는 현재 이탈리아의 피렐리사만이 관련 기술을 확보한 채 후발업체에 대한 기술이전도 기피하며 시장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LG전선 관계자는 “현재 일체형 접속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1300억원 정도지만 개발완료 시점인 오는 2005년 이후에는 2500억원 규모로 급증할 것”이라며 “경쟁사와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LG전선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5%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창기업, 지역민을 위한 삼창문화관 건립, 개방

울산의 원자력 계측제어설비 전문업체인 삼창기업(회장 이두철) 문화관을 건립,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해 귀감이 되고 있다.

삼창기업은 회사 창립 29주년을 맞는 지난 5월15일에 맞춰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1850평의 부지에 신축한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806 평 규모의 삼창문화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삼창기업은 이곳 전시장에 이두철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세계 20여 국가의 석조물 200여점과 서양 화 40여점, 국내 유명서화 120여점, 도자기 등 모두 400여점의 예술 작품을 전시해 개방했다.

이 회장은 “21세기 글로벌시대는 지식과 정보, 문화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21세기형 기업문화 형성과 향토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문화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1974년 설립된 삼창기업은 원자력 계측제어설비 전문업체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0년 과학기술진흥 유공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국내 원자력발전분야 기술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LG산전 인버터, 중국서 급성장

LG산전(대표 김정만)의 공업용 세탁기 전용 인버터가 중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LG산전은 지난달말 현재 중국 공업용 세탁기 전용 인버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점유율 40%를 달성해 일본 야스가와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공업용 세탁기 전용 인버터 시장은 연간 약 500만달러 규모로, LG산전은 올해 약 220만달러의 현지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올들어 LG산전은 중국 전체 인버터 시장에서도 4월말 현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4% 늘어난 34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중이다. 따라서 LG산전은 올해 중국 인버터 시장에서 작년대비 100% 늘

어년 1000만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산전 관계자는 “1억5000만달러 규모의 중국 인버터 시장에 뛰어들 지 2년여 만에 매년 100%의 매출신장을 이루고 있다”며 “타깃시장을 겨냥한 전용인버터 제품으로 현지시장을 공략한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대중, 對中 시장 공략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본부장 김영남)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디지털 전력변환연구소를 설립, 북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중전기 업체와 합작 공장 설립에 합의했다.

합작 공장은 중국 중전기 업체의 종전 공장에 현대중공업의 생산설비와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양사는 이미 현장 실사를 마치고 최종 투자비를 조정 등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에 설립한 합작공장에선 올 3분기부터 배전반, 차단기 등 중저압 기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김영남 현대중공업 본부장은 “중국 공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공략의 전초지로서 그동안 소홀했던 아시아 시장에서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7천만 달러 상당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는 성공적으로 진출했지만, 상대적으로 동남아와 중국시장에선 경쟁사에 밀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중국은 베이징올림픽, 상하이 무역박람회 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사가 줄을 잇고 있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 경우 전력기기 시장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보국전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비상 발전기 공급계약 체결

보국전기(대표 박기영)가 최근 대구광역시와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에 사용될 비상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급물량은 200 ~ 600kW급 30여 대로 현대 등 대기업과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여 물량을 수주했다. 이번에 공급하게 된 발전기는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원과 함께 상용전원으로 사용되며 특히 야간 경기 시 조명의 주전원으로 사용된다.

보국전기는 오는 7월 말까지 주경기장을 포함해 전경기장에 제품을 납품할 계획이며, 대회기간에

회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기기 작동을 도울 방침이다.

곽기영 사장은 “유니버시아드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로 지난 40여 년 간 축적한 기술력과 대구월드컵 경기장에 발전기를 납품했던 경험이 이번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국전기는 최근 베트남 지사를 설립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효성, 발전사업 적극참여

효성이 대전 금고동에 3,460kW급의 쓰레기매립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한다.

(주)효성(대표 이돈영)은 지난달 28일 865kW급 4기가 설치되는 대전 유성구 금고동의 쓰레기매립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이 산자부 전기위원회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5월 중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효성이 건설하는 쓰레기 매립가스 발전소는 총 65억8,700만원이 투자됐으며 효성이 70%의 지분을 토탈이엔에스(주)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약 15억 9,000여만원을 효성과 토탈이엔에스가 충당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사업자금(ESCO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발전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되면 매출액의 약 6% 가량이 대전시에 지급된다.

전기위원회는 발전소 건설에 소요기자재 중 발전기를 비롯한 전력설비는 전력기기 전문제조업체인 (주)효성이, 쓰레기매립가스 포집 및 전처리 부문은 토탈이엔에스(주)가 맡아 추진하고 있어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효성이 대전시와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부터 준비작업에 착수, 이미 37억 원을 쓴 상태며 발전소 건설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허가했다”고 설명했다.